



## 깊이 읽으면, 길이 보인다

이 권 우  
도서평론가

문제는 방법이다. 그것을 알면, 책읽기에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 문제는 그 방법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평소 책을 읽지 않아서 그렇다. 모든 것이 그렇듯 꼬일대로 꼬인 것인데, 대체로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할진데, 거듭 말하거니와 방법을 알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책 읽는 방법을 주제로 다룬 책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일이다. 그 사람이 무엇을 계기로 그러한 방법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지 알아둔다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단지 조심해야 할 것은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을 너무 신중단지 모시듯 하지는 말라는 것이다. 대체로 만병통치약이라 선전하는 것들이 약효 없듯, 모든 사람에게 두루 통하는 독서법이란 없다. 읽거나 들은 방법 가운데 설득력 있는 것을 골라내 직접 실천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독서법을 찾아내야 한다. 그러니까 책을 즐겨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독서법을 하나씩은 가진 것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책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나는 그럴 때 즉답을 피한다. 한마디로 정의하기 너무 어려운데다, 그 즉시 답변해봐야 큰 도움이 되지 않아서이다. 비유하자면 이렇다. 의사들이 환자를 직접 진찰해보지 않고 처방을 내릴 수는 없다. 환자마다 징후가 다른데다 그 환자에게 걸맞은 치료법이 따로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책읽기에 대한 도움말도 마찬가지다. 두루 통하는 그



무엇이 있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 사람마다 다른 독서력(力/歷)과 선호도, 그리고 책을 읽는 목적을 알아야 비로소 답변해줄 수 있는 법이다. 그래서 나는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각각의 책 읽는 방법을 말해준다. 그것은 마치 그물과 같다. 그물이 고기는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있으면 고기를 낚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물을 건네주는 것이다. 이 그물을 가지고 저 책의 바다로 나아가라. 그리고 던져라! 그리하면 원하는 교양과 지식을 건져 올릴 수 있으리라.

책읽는 방법 가운데 기본에 해당하는 것이 ‘깊이 읽기’다. 어떤 계기가 되었든 한권의 책을 감명있게 읽었다 치자. 그리고 나면 이름하여 ‘독서의 후폭풍’이라 할 만한 일이 벌어진다. 그 책에 그치지 않고 그 책을 쓴 지은이의 다른 책을 더 읽고 싶어 하는 경우가 일어나거나, 같은 주제를 다룬 다른 책을 읽고 싶어지는 것이다. 한편으로 그치지 않고, 관련된 책을 두루 읽으니 정보와 교양 그리고 지식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깊이 읽기라 한 것이다. 자고로 좋은 책이란 그 책을 읽고 났더니 다른 책을 더 읽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기게 하는 책이다. 그리하여 책읽기에도 족보가 생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는 식으로, ‘가’를 읽고 났더니 ‘나’가 보고 싶어졌고, 그것을 읽었더니 자연스럽게 ‘다’라는 책을 읽게 되더라는 것이다.

깊이 읽기 가운데 책벌레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한 작가의 작품을 다 읽어내는 것이다. 조희봉은 〈전작주의자의 꿈〉에서 이 같은 독서법을 일러 ‘전작주의’라 이름 붙였는데, 전작주의란, ‘한 작가의 모든 작품을 통해 일관되게 흐르는 흐름은 물론 심지어 작가 자신조차 알지 못했던 징후적인 흐름까지 읽어내면서 총체적인 작품 세계에 대한 통시·공시적 분석을 통해 그 작가와 그의 작품 세계가 당대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러한 작가의 세계를 자신의 세계로 온전히 받아들이고자 하는 일정한 시선’을 의미한다고 했다.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이문구의 〈관촌수필〉을 읽은 적이 있다고 쳐보자. 자꾸 읽어야 한다고 하는데다 수능이나 논술에 도움이 된다 해서 읽었으니 제대로 읽었을 리 없다. 더욱이 지뢰처럼 문장 곳곳에 파묻혀 있는 토박이말에다 능청스런 충청도 어감에 적응하지 못해



힘겹게 읽었을 터다. 나중에는 무슨 내용인지는 고사하고 뭘 말인지 국어사전 찾아 정신없어지기까지 했으리라. 그러다 대학에 들어와 우연히 <관촌수필>을 다시 읽게 되었다고 쳐보자. 그때는 도통 알 수 없었던 말을 알아듣게 되고, 다루는 주제나 그것을 소화해내는 방식도 이해하게 되었다. 다 읽고나니 물밑 듯 밀려오는 감동이 있었다. 역사의 회색 양이면서도 이를 이겨내는 넉넉한 낙관과 해학 따위가 마음에 들었다. 처음 읽을 때는 가독성을 해치던 토박이말은 외려 정겹게 느껴졌다. 이렇게 되면 대뜸 이런 생각이 든다. 이왕 내친 김에 이문구 소설을 확 다 읽어버릴까, 하는 것 말이다. 그리하여 시중에 나와 있는 이문구 전집을 구해 탐욕스럽게 한권씩 읽어나갔다면, 그리하여 마침내 다 읽어냈다면, 그것이 바로 전작주의 독서가 된다.

이 방법은 깊어져서 넓어지게 한다. 한 작가의 작품 전체를 읽으면 다른 무엇보다 그 작가의 작품 세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다. 당대 현실에 맞서고 더 나은 세계에 대한 꿈을 어떻게 그렸는지 알게 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자주 쓰는 말이나 표현방식도 익히게 된다. 읽는 이의 표현력이 풍부해지는 부수효과도 있다는 말이다. 이런 독서법은 문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주로 활용한다. 한권의 작가 연구서를 쓰려고 연구자는 그 작가의 작품을 완독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저서들도 두루 읽게 된다. 그리고서 자신의 관점에 따라 한 작가를 평하게 되는 것이다. 김윤식의 <이광수와 그의 시대>가 이런 류의 책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책이라 할 만하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오에 겐자부로도 비슷한 독서법을 권한다. 다른 게 있다면, 시한을 정해 읽어보라는 것인데, 그 저자의 책을 다 읽겠다는 것보다는 3년 동안 읽어보라고 한다. 이 이야기는 오에 겐자부로의 자서전 <‘나’라는 소설가 만들기>에 다음처럼 나온다.

“소설가로서의 나의 인생에 실제로 유용한 가르침을 준 사람은, 나의 대학 스승이자 만년까지 나를 이끌어주신 와타나베 가즈오 교수였다. 그때 내가 대학에 있었던가 졸업했던가, 어쨌든 <개인적 체험>을 쓰기 전이었던 건 확실하다.



‘저널리즘의 평가라고 할까, 어쨌든 자네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당장이라도 변할 수 있으니까 믿을 수가 없지. 비평가 선생들의 자네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야. 그들은 위대한 사람들이니까..... 특히, 자네는 자네 방식으로 살아나가지 않으면 안되네. 소설을 어떤 식으로 써가는지 나로서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시인, 작가, 사상가들을 상대로 삼년가량씩 읽어나간다면, 그때그때의 관심에 의한 독서와는 별도로 평생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네. 최소한 살아가는 게 따분하지는 않을 거야.’

그때부터 내 인생의 원칙은 이 선생님의 말이었다. 나는 삼년마다 대상을 정해서 독서하는 것을 생활의 기둥으로 삼았다.”

깊이 읽기의 힘이 얼마나 센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 작가를 세계적 명성을 얻는 작가로 성장케 한 힘이 바로 깊이 읽기에서 비롯되었다 하지 않는가. 더욱이 오에 겐자부로 의 독서법은 실용성도 높다. 아무리 유명한 작가라 해도 태작(駄作)이 있는 법이다. 전작주의에 함몰돼 그런 작품까지 읽는다는 것은 소모적일 수 있다. 그런데 3년 정도로 시한을 정해 한 작가의 작품을 두루 읽는다면, 알곡만 추려내 읽을 수 있을 터이다.

깊이 읽기가 꼭 전작읽기로 제한될 필요는 없다. 같은 주제를 다룬 책을 두루 읽어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하는 방식도 분명히 깊이 읽기의 한 방식이다. 우연한 기회에 일부일처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치자. 결혼의 방식은 다양했다. 특히 근대 이전을 몰라치면 일부다처이거나 일처다부 같은 형태가 퍼져 있었다. 각별히 근대에도 예외적이지만 다른 결혼 형태가 여직 남아 있다. 그렇다면 왜 근대에 들어 일부일처제가 결혼과 사랑의 주된 방식이 되었는지, 그리고 미래에도 여전히 이 형태가 지속할지 궁금해지게 된다. 이런 지적 호기심을 풀어나가려고 관련 책을 두루 읽어나간다. 바로 이것도 깊이 읽기라는 말이다.

이 독서법은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술적 글쓰기’ 와도 맞닿아 있다.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려고 관련된 주제를 다룬 책을 두루 읽고, 이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사유가 담긴 한편의 글을 써낼 수 있게 된다. 이런



때 책은 주춧돌 노릇을 한다. 나만의 사유는 기둥과 지붕이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한 것은 선학들의 지적 결정체인 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깊이 읽어야 튼튼한 사유의 집을 지을 수 있는 법이다. 책읽기가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장 이 방법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나가 보길 권해본다. 무릇, 책에 길이 있는 법이다.

좋은 책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책과 가까워질지 고민하고 있다면, 거듭 깊이 읽어보기를 권해본다. 에둘러 가는 듯하지만, 이미 겪어본 이들은 알거니와 그것이 지름길이다.

## • [2008학년도 1학기 · 여름방학]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자료제작 워크숍

서울대 교직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윈도우 무비메이커를 활용한 동영상 편집 및 제작,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파워포인트(기초), 포토샵을 활용한 파워포인트(중급) 실습 강좌를 매달 진행합니다.

- 일 시 : 매월 넷째주 개설
- 신 청 : 교수학습개발센터 홈페이지 (<http://ctl.snu.ac.kr>) “교육프로그램 신청” (매월 초 접수 시작)
- 문 의 : 학습지원부 (02) 880-1327/5418)